

이재명 후보 “진보·보수 아닌 대한민국만 있을 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와 윤여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장이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서울서 공식 선거운동 첫 발... ‘빛의 혁명’ 선대위 출정 “내란 종식으로 벼랑 끝 민주주의 살리고 국민의 삶 지켜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이날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 후보의 출정식을 보기 위해 청계광장에는 지지자 2만명이 참석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의 2

차·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3년 전 대선에서 미세한 승리를 하고도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이 교만과 사리사욕으로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며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할 지경이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민주주의·국격은 무너지고 평화와 안보도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은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내란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닌, 신문명시대 새로운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어 분열할 이유가 없다. 이제부터

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당선자는 숨들릴 틈도 없이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거대한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 바로 투입될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꾸는지 증명하겠다. 저를 국민의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 충직한 일꾼으로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출정식에 함께한 선대위원들도 선전을 다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민주연구원이 그동안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 Q’에서 수집한 국민의 의견을 모아 만든 녹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출정식을 마친 후 곧바로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의 한 스튜디오를 찾아 IT기업에서 근무하는 개발자들을 만났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권성동, 김문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글로벌 통상·과학기술 패권경쟁 승리 이끌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여수서 첫 일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2일 첫 선거운동 일정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통상과 과학기술 패권경쟁을 승리로 이끌 비전을 약속했다. 이날 여수 국가산업단지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 공장을 방문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수석유화학단지는 중국과의 물량 경쟁, 덤핑 경쟁 속 이익몰이나 매출 규모가 최근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대통령 이 될 사람이 외교적 감각, 통상에 대한 이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공계 출신이면서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내게 내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첫 선거운동 일정으로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적 최저 임금 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상하 30%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바 있다”며 “노동유연성 이전에 임금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해법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치적 쟁점에 있어서 개혁신당과 나는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문수 후보 “당 내홍 해결...시장 대통령·민생 대통령 되겠다”

국민의힘, 가락시장서 선거 시작 “낮은 지지율 꼭 반전 이뤄낼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상인들을 만나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며 “장사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없어서다. 그래서 외식을 안 한다”며 “나이 든 분들이

식당에 가서 먹을 일이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주로 ‘5일제’ 실시를 요청했고, 김 후보는 “젊은 분들이 쉬길 쉬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후 상인 대표들과 순댓국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후보는 시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다”며 “그 여파로 장사하는 소상공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잘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논의 과정에 불거졌던 내홍 상황에 대해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다”며 “우리가 서로 싸운 건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 굳은 단합·단결로,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바탕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와 관련해선 “저는 과거 경기 부진 소사구 총선을 시작할 때 3등이었다가 마지막 3일 전에 1등으로 올

라갔었다”며 “대통령 선거도 매우 다이내믹하다”고 ‘반전’을 자신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아주 어렵지만 반드시 이긴다.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중 누가 민주주의냐(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군주박질쳤지만, 극적으로 반전을 이뤘다”면서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민심이 엄청난 에너지로 드라마를 쓰는 드라마틱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이만희 수행단장, 송파구 지역구 국회의원 배현진·박정훈 의원 등이 동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뺏는데 해볼래?

알바 뺏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 한국보험업자협회